



###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오대산에 오만 진신이 상주하는 까닭은?

# 오대는 동서남북 상하 연결한 우주 상징

#### 1. 문수신앙과 화엄신앙의 결합

한민족은 예로부터 하늘을 숭배해 왔다.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 왕검이 백악산(白岳山, 遼寧省 靑山)의 아사달(朝陽, 옛 營州)에 도읍을 한 이래 이 땅은 환인(桓因)에 대한 천신신앙과 단군(檀君) 왕검(王儉)에 대한 산신신앙을 주축으로 고유의 신앙 체계를 형성시켜 왔다. 특히 산악을 무대로 하늘[天]과 땅[地]과 사람[人]을 주축으로 하는 삼재(三才)사상은 고조선의 중심철학이었으며 이 사상은 오늘날에도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한(漢)나라의 끊임없는 공격에 맞선 고조선은 만주 요서의 아사달로부터 요동을 거쳐 반도 내의 평양성까지 다섯 차례나 수도를 옮겨 왔다. 고조선이 해체된 이후에도 산신이 된 단군을 숭배하는 산악신앙은 끊어지지 않고 면면히 이어져 왔다. 신선사상과 산신신앙을 결합한 풍류도(風流道)는 불교와 융합하면서 고구려와 백제 및 가야와 신라의 사국, 통일신라와 대발해의 남북국, 고려와 조선시대 및 대한시대 이래 이 땅의 저변에서 주요 사상으로서 이어오고 있다.

요서의 백악산으로부터 시작된 흐름은 요동을 지나 백두산으로 이어졌다. 백두산에서 다시 시작된 이 흐름은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백두대간으로 흘러오다가 주맥인 오대산에 이르렀다. 이후 오대산은 신라 선덕여왕 이래 자장(慈藏) 율사에 의해 문수도량이 시설되고 화엄 신증이 머물면서 불교의 성지로 자리잡아 왔다. 특히 자장은 이 오대산을 진성(眞聖, 文殊菩薩)이 머무는 곳[住處]일 뿐만 아니라 오만진신(五萬眞身)이 머무르는 곳으로 시설하였고, 월정사에서는 석존의 전세(前世)였던 유동(儒童)보살의 화신으로 불린 신호(信孝)거사가 직접 오류성중(五類聖衆)을 만나기도 하였다. 또 신문왕(神文王, 淨神) 때는 보질도(寶叱道) 태자와 아우 효명(孝明)태자가 이 산에 들어와 출가하여 보천암(寶川庵)에서 수도하였다. 이후 효명은 서라벌로 돌아가 효성왕에 이어 성덕왕으로 재위했다. 반면 보질도(寶川) 태자는 북대의 남쪽 기슭에 암자를 짓고 부지런히 정업(淨業)을 닦았다.

그런데 오대산에 오만 진신이 머물러 있기 때문일까. 『삼국유사』 「탐상」편에는 오대산 관련 기사가 4조목이나 실려 있다. 황룡사 관련 4조목의 기사는 몇몇 문목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지만 오대산은 산악신앙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종래 한국의 산악신앙은 주로 현재 북한지역의 금강산과 보현산이 중심이지만 남한에는 지리산과 계룡산 등에 대한 신앙이 있어 왔다. 금강산의 이름은 『화엄경』에서 유래되었다. 이 산의 이름은 금강산 이외에도 개골산, 풍악산, 열반산, 기달산 등의 이름이 있다. 금강산(『60권화엄

경』)과 기달산(『60권화엄경』)은 신구역 『화엄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후 금강산은 청량(淸涼) 정관(澄觀)의 『화엄경소』에 근거하여 불리게 되면서 지리산, 묘향산, 구월산, 오대산, 태백산, 계룡산 등과 더불어 한국 산악신앙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자리잡아 왔다.

금강산은 『화엄경』의 보살주처 신앙에 의해 담무갈(曇無竭)보살 또는 범기(法起)보살이 1만 2천의 권속을 거느리고 상주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구역화엄경』에서는 '일만 이천' 권속과 '담무갈' 보살이 등장해 있고, 『신역화엄경』에는 '금강산'과 '범기' 보살이 등장해 있다. 금강산이 보살이 머무르는 신앙처로 형성된 것은 『화엄경』 신앙이 널리 퍼지면서 정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금강산 '1만 2천 봉'이라는 표현은 금강산의 보살주처 신앙과 맞물려 '1만 2천'의 권속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1만 2천 개 사찰' 역시 같은 맥락에서 붙여진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은 금강산의 빼어난 봉우리들과 범기보살의 권속을 연계시켜 은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묘향산은 보현보살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달리 오대산에는 문수보살과 오만 진신이 상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 2. 자장의 오대산신앙 개항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상주한다는 문수신앙이 정착된 것은 자장에 의해서였다. 그는 중국에 유학하여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만났다. '대산오만진신' 조와 『오대산사적기』내 민지(閔濟)가 쓴 '봉안사리개건사람 제일조사전기'(이하 「제일조사전기」)에는 "이것은 본사 석가(世尊)이 쓰던 물건이니 그대가 잘 간직하도록 하라"고 적혀 있다. 문수보살은 또 "그대 본국의 동북방[東方]에 있는 명주 땅 오대산에 1만의 문수보살이 그곳에 상주하고 계시니 그대는 가서 뵈도록 하라"고 말을 마치고 사라졌다. 문수보살은 다시 "그대의 본국 명주 지역에도 또한 오대산이 있으니 이곳도 1만 문수가 그곳에 상주하고 계시니 가서 뵈도록 하라"고 하고는 사라졌다. 신라로 돌아온 자장은 동북방에 자리한 오대산에 가서 3일 또는 7일간 머무르며 문수보살을 친견하려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그런데 『삼국유사』 「대산오만진신」 조에서는 오대산에서 문수를 만날 수 있다고 한 것과 달리 「제일조사전기」에는 "뒤에 마땅히 그대를 태백산의 갈반지처(葛蟠之處)에서 다시 보게 될 것이다"는 내용을 덧붙여 수정하여 친견을 기정사실화 한 것으로 이해된다.

자장이 당나라에서 돌아왔을 때 신라가 직면한 과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토착신앙인 무격( 무면)과 불교사상과의 대립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국가 사이



오대산 비로봉 모습. 오대산은 화엄설주인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명산으로 여겨졌다.

### 자장, 당나라서 오대산 문수신앙 접해 신라서 펼쳐 화엄, 밀교 융합신앙 정착못해, 신문왕 두 태자 노력 관음·지장신앙 융섭하며 한국 독자체계 가져

의 갈등과 계층 사이의 대립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자장은 이러한 대립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합의 원리를 지니고 있는 화엄사상을 도입하였고 이를 밀교와 결합하여 오대산신앙으로 확산시켰다. 당나라에서 비롯된 오대산 신앙은 『화엄경』 「보살주처품」과 밀교 경전인 『문수사리(범보장다라니)경』에 근거하고 있다. 『화엄경』에서는 "동북방의 청량산에는 옛날부터 모든 보살이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는 문수사리보살이 1만의 권속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위해 항상 설법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문수사리경』에서는 "그때 세존께서 금강 밀적주(金剛密跡呪)보살에게 말하기를 '내가 멀도한 뒤에 이 염부주 동북면에 대진 나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 안에 오정(五頂)이라는 산이 있으니, 문수사리동자가 유능 거주하면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설법한다'고 한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은 현교의 청량산과 밀교의 오정(오대산)의 결합으로부터 오대산신앙이 출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장은 당나라 오대산에서 화엄의 설주인 문수보살을 만났다. 당시 문수보살은 신라의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있으니 가서 만나보고 했다. 이것은 현교인 화엄신앙과 밀교인 문수신앙의 결합을 통해 신라의 당면 과제였던 사상적 정치적 대립을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신라 정치계와 사상계는 화엄계와 밀교계가 대립하고 있었다. 자장은 이들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필요로 하였다. 그 뒤 자장은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만났으나 자신의 분별심 때문에 문수보살이 떠나갔고 그곳에서 입적하게 되었다. 현교의 화엄과 밀교의 문수사리신앙이 결합한 오대산신앙은 자장에 의해 도입되

었다. 하지만 화엄사상과 밀교사상이 결합된 오대산 신앙은 정착되지 못하였고 발전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자장은 선덕여왕의 승하 이후 정치적 기반을 상실한 채 오대산과 태백산 등지에 머물며 화엄과 밀교의 융합을 도모하였으나 왕실의 지원을 더 이상 받지 못하였다. 이것은 태종 무열왕계의 지원을 받으며 새롭고 활동을 시작한 원효와 의상과 크게 대비된다. 결국 현교의 화엄사상과 밀교의 문수사리신앙을 결합한 오대산신앙은 신문(정신)왕의 두 태자인 보천과 효명에 의해 발전될 수 있었다.

#### 3. 보천의 오대산신앙 완성

삼국통일을 완수한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에게는 여러 명의 왕자들이 있었다. 그는 세자 책봉을 받고 소관 김흠돌의 딸(김씨 왕후)과 결혼한 뒤 왕위에 올랐다. 김씨왕후 사이에서 보천(寶川)과 효명(孝明)과 부군(副君)이 태어났다. 신문왕의 태자이자 그(보질도, 寶川)의 아우인 부군(副君, 淨衆無相 추정)이 왕위를 다투다가 죽임(?)을 당하자 하지만 장인 김흠돌의 반란(681) 이후 신문왕은 왕비를 폐하고 김흠돌의 반란을 진압한 혜통(惠通)과 김흠돌의 딸을 왕비(제2 神穆王后)로 삼았다. 그 사이에서 이흥(理洪, 효소왕)과 흥질(興質)과 사종(嗣宗)이 태어났다. 이흥은 왕위에 올라 효소왕(692~702)이 되었으나 보천과 효명 태자를 옹호하는 오대산 세력과의 왕위 쟁탈 싸움의 후유증으로 702년에 병사하였다. 오대산에서 수행을 하던 효명은 서라벌(경주)로 돌아와 신라 33대 성덕왕으로 등극하였다. 하지만 보천은 오대산에 머물며 오대산신앙을 심화시켜 갔다.

오대산신앙은 현교인 화엄과 밀교인 문수신앙이 결합한 문수화엄 혹은 화엄밀교사상이다. 이 사상은 중앙에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동남서북 사방에 사방불을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경전과 참법이 주야로 구분되어 정연한 일대 만다라를 형성하고 있다. 만다라는 우주의 삼라만상을 한 눈으로 통일하여 볼 수 있게 만든 지형도이다. 사방불은 만다라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오대산은 공간적으로로는 중앙과 동남서북의 오방에 상하(上院, 下院)를 연결하여 전 우주를 상징한다. 시간적으로는 그 우주의 핵에 범신비로자나불을 안치하여 영원을 상징하고 있다. 특히 북진(福田)의 37원(眞)은 금강계만다라의 37존을 상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체계의 정비에는 보천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대산오만진신' 조의 만다라의 사방불 배치가 금강계밀교와 다르다는 점은 주목된다. 밀교에서는 중앙에 비로자나불, 동쪽에 아축여래, 서쪽에 아미타여래, 남쪽에 보살(寶生)여래, 북쪽에 불공성취(不空成就) 여래를 배대하고 있다. 여기서 불공성

취여래의 경우는 밀교에서는 석가여래와 동체(同體)로 생각하고 있다.

반면 오대산신앙은 아축여래 대신에 관음보살, 보살여래 대신에 지장보살을 시설하고 있다. 이렇게 배대된 것은 당시의 교계 형편과 신앙의 태도가 투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오대산신앙은 당시의 주요 신앙들을 화엄의 입장에서 포섭하고 밀교의 구조로 재정립한 것이다. 때문에 당시 주요한 입지와 상당한 세력을 갖고 사회적으로 실천되고 있었던 관음신앙과 지장신앙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평왕대 이래 원공은 지장신앙의 일환으로 행해지던 점찰교법을 널리 대중화시켰다. 명랑은 문두루 비법을 써서 신라를 공격하려 한 당나라 고종의 집락을 물리쳤다. 자장은 오대산 신앙을 도입하면서 관음상을 조성한 공덕으로 관음신앙이 탄생하였다. 의상은 낙산에서 관음도량으로 탐바꿈시켰다. 때문에 보천은 당시의 주요 신앙이었던 지장신앙과 밀교신앙 및 관음신앙의 지형을 감안하여 오대산신앙의 구조 안에 편입시켰다. 이것은 다양한 사상과 다기한 성과를 인정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만다라의 우주 범계적 구조 안에서 적절한 원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상징해 주고 있다.

보천의 이러한 노력은 오대산신앙의 신라적 창안으로 자리잡았다. 보천은 문무왕의 삼국통일 이후 신문왕으로부터 효소왕-성덕왕-경덕왕으로 이어지는 신라 문명의 극성기에 살았다. 특히 성덕-경덕왕대는 신라 문명의 최정성기였다. 이 시기에는 우리 민족문화의 급진적으로 평가받는 토함산 석불사 본존불(석굴암)과 불국사가 완성되었다. 당시 신라는 절대왕정을 꿈꾸었던 경덕왕이 귀족세력과 반복하면서 사회적 분열이 극심하던 때였다. 보천은 이러한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갈등을 통합하기 위해 자장계의 화엄사상을 부흥시키고 밀교적 문수신앙을 결합한 오대산신앙을 체계화시켜 신라의 통합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 과정에서 오대산에는 오만 진신이 상주하게 되었고 관음과 지장 신앙의 반영을 통해 오대산신앙은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체계를 지닐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일 연, 『삼국유사』, 관산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 김영태, 『삼국유사의 불교신앙 연구』(신원문화사, 1975)
- 서윤길, 『한국밀교사상사 연구』(불광출판부, 2000).
- 이병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민족사, 2005: 2007).
- 고영성, 『한국불교사연구』(한국학술정보(주), 2012)
-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질할 때마다 한 알씩 깨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입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꿸 때 되면 염주는 멀하고 공덕이 높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등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 1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강염주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삼색, 코핀1개, 펜던트, 이부사계
-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혔을 염주는 준비물 중 이부사계로 해결합니다
-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 4 수직으로 나열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강염주로 통과시킵니다.
- 7 마강염주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펜던트를 끼웁니다. 다시 마강염주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 8 이때 펜던트와 마강염주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의 마강염주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 9 두 줄로 2회 앞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 10 다시 매듭을 3번 험껏 조이면 됩니다.
-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리미터로 살짝 지지서 손으로 가볍게 늘려줍니다.
- 12 108염주 완성  
신용신한카드출원 20-201-0003692 20-201-0004171 20-201-0005656

**다담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